

AUTHOR 정장복

TITLE 종교개혁기에 등장한 다양한 예배 전통에  
관한 분석

IN 장신논단

vol.19 (2003): 235-265

## 종교개혁기에 등장한 다양한 예배 전통에 관한 분석

정장복 / 교수 · 실천신학

### 여는 말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교개혁의 시발과 확산은 “구원은 행함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라는 교리의 주창 때문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개신교는 지금껏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불길을 그렇게 신속하게 번지게 했다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평가이다.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원성이 행함을 강조한 교리보다는 매 주일 드리는 예배에서 싹튼 불만이 개혁의 대열을 강화시켰다는 사실이 새롭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창조가 어느 지도자에 의하여 단순하게 이룩된 것이 아니고 그 지도자와 공감하고 함께 따라주는 교회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교회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가 느끼는 필요성이 고조되고 합류될 때 진정한 개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의 말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서술이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종교의 여러 양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다. 왜냐하면 종교의 모든 측면은 신학과 정치형태를 포함하여 예배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저속하게 타락하였던 당시 상황은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주원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지적은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진정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예배가 회중과 호흡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탱하는가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달라진다. 중세의 교회가 개혁의 불길을 그토록 신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당신의 예배로부터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했던 살아있는 예배의 형태들과 그 내용들이 갖추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정신이 사라져가고 어느 때보다 혼탁한 예배가 난무하는 현실에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 1. 개혁이 필요했던 중세교회의 예배

### A. 예배에 대한 불만과 종교개혁

1517년 루터가 개혁의 봉화를 들기까지는 교회에 예배 이외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6세기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깊은 암흑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예배 외적인 문제들이 교회가 직면한 개혁의 과제라고 볼 수 있으나 가장 시급했던 것은 예배 안에서 쌓인 불만스러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었다.<sup>2)</sup>

무엇보다도, 예배의 언어를 들 수 있다. 예배의 공용어가 모두 라틴어로 되어있어서 회중들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중은 단순한 관객의 역할을 감수 할뿐 예배의 진지한 내용과 동화되지 못하였다.

둘째는, 어거스틴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중세의 미

1) Ilion T. Jones,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New York: Abingdon, 1954), p. 153.

2) 다음에 지적된 사항들을 좀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면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라.

Dom Gregory Dix, *The Shape of the Liturgy*(Glasgow: The University Press, 1949), pp. 615-625, Hughes Oliphant Old, *Worship: Guides to Reformed tradi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pp.1-8, Ilion Jones, 위의 책, 4장.

사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말씀으로 먹여지고 살지는 지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위험한 경지에 도달하였다. 특별히 성경이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아니한 현실에서 이들은 성경말씀과의 접촉이 단절되어 있었다.

셋째는, 빵과 잔에 성찬기도가 있어진 다음에 그 성물이 변화를 이르게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화체설은 성체성사(성찬성례전)가 신비적인 예전으로 이해되었고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발생된다는 미신적 신앙이 농후하였다.

넷째는, 성찬성례전의 신학적 해석이 언제나 고난과 구속에 초점을 들뿐 부활과 승천을 가졌은 대 제사장으로서의 해석은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예전은 순교와 고행과 덕행이 강조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위대한 덕목으로 간주되어 부활의 신앙보다는 고난과 순종이 강조되었다.

다섯째는, 이들의 예전은 사제가 독무대를 이루어 회중의 이해나 관심을 외면하였다. 특별히 그 집례의 위치와 방향은 제단을 향해 서 있어서 낮은 소리로 진행되는 예배 내용은 회중들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다.

여섯째로, 미사의 기본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교회를 이룬다는 측면은 약화되었고, 미사는 사제가 다른 개인들을 위해 드리는 희생제사로서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결과 어떤 미사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제사적 행위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곱째로, 고대 교회가 사용하였던 여러 가지의 상징물들과 그림들, 그리고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의 상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서는 이것들이 모두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어 상징에서 위상숭배의 형태로 변질한 모습이 보편화 되었다.

여덟째로, 1415년 콘스탄틴 회의 이후부터는 시간과 외형적인 번거러움을 구실로 성찬성례전에서 잔은 주지 않고 빵만 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제만이 성물을 들고 회중은 구경하는 형식으로 진행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끝으로, 고정된 예배서가 개정을 거듭하지 않고 수세기를 지속하여 사용되었고, 언제나 변하지 않은 기도문의 내용과 예배 순서의 답습으로 예배의 신선감이 결여되고 기계화된 예배로 전락하였다.

이상과 같이 회중들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는 만남을 갖지 못한 가운데 수세기 동안 불만과 아픔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여야 했다. 소통되지 않은 예배언어, 맹목적인 헌신과 신비의 강조, 미신적인 연출이 가득한 성찬 예전, 하나님 말씀의 부재 등등으로 얼룩진 예배의 무질서는 맹종의 예배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하였다. 학문과 예술에 재생과 부활의 가치를 들고 나선 르네상스의 물결은 이러한 맹종의 예배현장에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였다.

#### B. 예배에 대한 개혁자들의 공통분모

개혁자들은 모두가 참된 교회로의 회복을 위한 신학의 정립과 교회의 구조적 개혁을 원했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what)은 함께 느끼면서도 “어떻게”(how)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였다. 일리온 존스는 개혁자들의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들이 새로운 예배 형태로 개혁하는 임무를 용기 있게 그리고 차밀하게 잘 감당했고, 그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하고 필수적인 개혁들을 이루지만 그 개혁들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sup>3)</sup> 다시 말해 그들은 통일된 하나의 예전을 만들어 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양성 있는 개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다양한 예배 전통이 생성되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혁자들이 가졌던 공통 관심사는 크게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세의 예배에 대한 신학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반복 혹은 재현으로 보는 경향이였다. 그러한 까닭에 로마 카톨릭 미사에서는 성찬성례전을 미사의 절대적인 구심점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예배신학에 개혁자들은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독교 예배는 원래부터 말씀의 예전과 성찬 예전이 두 축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교회가 지켜온 화체설의 문제였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 봉헌된 성물(빵과 포도주)을 앞에 두고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에피클레시스)를 드리면 성물이 성변화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이다. 더욱이 화체설의 배후에 공적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반대의 가치를 들고 일어섰다. 여기에는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이도, 심지어는 그것이 회중들에게는 나누어지지 않더라도 집례한 성물을 보기만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거기에 더하여 개혁자들은 말씀의 선포인 설교의 위치를 초대 교회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의 위치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막중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설교가 회중들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실천하기에 이르렀다.<sup>4)</sup> 특별히 개혁자들은 교회의 용어가 라틴어로 고정되어 있는 것에 강한 불만과 반대의 의사를 함께 표현하게 되었다. 성경을 비롯하여 예배나 강론 등이 모두 알지 못하는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진리의 소통이 전혀 이룩될 수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었다.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문제 중의 하나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의 위치 문제였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나아 갈 수 있다는 교리에 개혁자들은 호흡을 함께 하였다. 결코 사제를 통하여 고해성사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거나 사제가 대신 드러주는 기도에 의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개혁자들은 모두가 강조하고 있었다.

개혁자들이 이상과 같은 문제들 앞에 원론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새롭게 탄생한 하나의 교회를 갖고 싶어 한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3) Ilion T. Jones의 위의 책, pp. 121-122.

4)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The Zondervan Corporation, 1982), pp. 74-76.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세력에 대하여 서로의 힘을 모아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공동체의 출발만을 바라는 것이 개혁자들의 순수한 동기였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라는 절대권 아래 일시불란한 통제와 질서가 유지 되었으나 개혁자들은 전체적인 조직이 있을 수 없었다.

개혁자들은 앞에서 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론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이상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그들은 예배개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주장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각기 다른 개혁의 노선을 걷게 되었다. 이들이 함께 일치점을 얻을 수 없었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예배의 형태에 대한 주장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의 해석 문제였다.<sup>5)</sup> 예배 형태에 있어서 개혁자들의 근본적인 불일치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예배 전통으로부터 연속성, 불연속성에 대한 문제였다. 그 이유는 새롭게 추창된 신학과 교리가 적용되는 현상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개혁자들의 내용과 방향을 달리한 주장에 다른 교회의 분열이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면 언제나 새로운 교회를 이룩하게 되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 즉, 단일교회로 지속해오던 교회가 개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교회의 모습은 건물의 양태가 아니라 예배의 형태에서 독자적으로 그 특색들을 보이고 있었다.

## II.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지킨 예배개혁

### A 예배 전통을 소중히 여긴 루터 계열

마르틴 루터가 가장 먼저 개혁의 총성을 터뜨렸던 첫 주자였지만 개혁자들 가운데서 그는 가장 온건한 입장에서 개혁을 주도하였다. 그

5) 줄저, 「예배학 개론」(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9), p. 96.

는 예배에 있어서 중세 교회의 미사로부터 어떤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아니하였다. 루터는 기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는 몇 가지 문제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만 수정하기를 원하였다. 특별히 그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예배가 온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언어로 집례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독일어로 집례할 수 있는 예식서를 발간하고, 독일 찬송가를 쓰고 작곡했으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또한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세 후기의 예배에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성직자의 독신주의, 순례, 평신도들에게 잔을 허락하지 않은 것, 화체설 등을 반대하면서<sup>6)</sup> 새로운 예배 신학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래서 맥스웰의 말대로 루터의 예배개혁은 창조적(creative)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보존하려는 경향(conservative)을 가졌다.<sup>7)</sup> 그는 처음부터 예배 형태를 바꾸려는 의도를 하지 않았었다.<sup>8)</sup>

다만 루터는 모든 개신교 예배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던 「교회의 바벨론 유수」(*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1520년*)를 통하여 그의 성만찬 신학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었다. 그는 이 책에서 로마 카톨릭의 성만찬 신학과 제도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내린 바 있었다. 루터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의 친교(fellowship)로 이해했으며, 그는 성찬성례전을 설교와 함께 예배의 중심으로 이해했다.

그는 성찬성례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예전으로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임재함' (the Real

6) Susan J. White, "Christian Worship Since the Reformation," *The Making of Jewish and Christian Worship*, edited by Paul F. Bradshaw and Lawrence A. Hoffma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p. 186.

7) William D.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Its Development and Form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6), p. 74.

8) Bard Thom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1), p. 96.

Presence)을 주장하는 공존설(consubstantiation)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성례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선물(the Mass as a sacrificium)로서가 아니라,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미사(the Mass as a testament)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루터는 1523년과 1526년에는 두 예식서를 발간하는데,<sup>10)</sup> 특별히 「독일 미사」는 전적으로 독일어만을 사용하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서 모국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예전이 되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미사의 대부분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였고, 다만 모국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 고려한 흔적을 보게 된다.

특별히 루터가 그의 예배개혁에서 고려하였던 것은 음악과 설교와 성만찬의 횡수에 대한 부분이다.<sup>11)</sup>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설을 중심하면서 신부를 중재자로 한 예배의 구조에 거부반응을 보였다. 루터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들 중의 하나로 음악을 간주하였기에 그는 보편화된 회중 찬송의 작곡, 작사에 대단한 열의를 보인 바 있다.

또한 루터는 말씀의 예전을 회복하여 설교사역을 부활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그의 설교들은 직접적으로 성서의 본문들을 다루었던 본문 설교의 형태를 가졌고, 그러면서도 회중들의 상황에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성찬성례전을 기독교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 주일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예배를 위한 복장과 이미지, 그리고 중세 교

9) William Willimon, *Word, Water, Wine and Bread*, (Vally Forge, PA: Jodson Press, 1980), p. 63.

10) Formula Missae와 Deutsche Messe가 그것인데, 전자는 라틴어로 되어 있으며, 후자는 독일어로 된 예전이다.

11) James White, "Lutheran Worship," *Twentieth Centuries of Christian Worship,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vol. 2, edited by Robert E. Webber (Nashville: Star Song Publishing Group, 1994), p. 75.

회 미사에서 사용되던 대부분의 것들, 즉 촛불 사용, 제단, 성상들, 십자가, 종 등을 루터는 깊은 의미를 주는 상징물로서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루터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이상과 같은 예배의 개혁은 사실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루터교의 예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를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 오늘에 이른다.<sup>12)</sup>

특별히 루터의 두 번째 예전인, '독일 미사'를 통해서 루터의 예배 예전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입당송과 함께 시작된 예배는 '자비의 연도' (Kyrie eleison), 인사 교환(Salutation)과 짧은 기도(collect), 그리고 서신서 봉독, 찬송(독일 찬송), 복음서 봉독,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동안 성만찬이 준비되어지며, 그 후에는 설교가 따라온다. 이상이 말씀의 예전이었으며, 다락방 예전으로는 주기도문, 권고의 말씀, 성만찬 제정의 말씀과 분병, 분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만찬을 받았고, 성만찬 후 기도와 아론의 축도로 이어진다.<sup>13)</sup> 루터는 성만찬 예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만찬 제정사에 포함시킴으로서 단순화시켰고, 성만찬 기도와 그와 관련된 전통적인 요소들을 대폭 감소시켰다.<sup>14)</sup>

#### B. '수장령' 아래 형성된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

영국의 종교개혁은 그 출발이 일반적인 개신교와는 달리고 있었다. 헨리 8세가 자신의 비합법적인 결혼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출교의 처벌을 받게 되자, 그는 1534년 로마 교황청으로

12) 루터교의 예배 발전에 대해서는 White의 책, *Protestant Worship*, pp. 49-57을 보라.

13)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pp. 79-80.

14) 위의 책, pp. 79-80; Thomson의 위의 책, pp. 130-137.

부터 종교적인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영국교회의 수장은 영국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유명한 수장령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수장령에 의하여 영국국교회(성공회-Church of England)의 통치권은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영국 왕실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은 교리나 신학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었기에 교황청으로부터 독립된 교회의 구조와 제도를 수립하였지만, 예배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을 가져왔다. 1542년 캔터베리 주교회의 때부터 시작된 개혁의 짝은 헨리 왕이 죽은 이후 에드워드(Edward VI 1537-1553) 때에 이르러 개혁의 줄기는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에드워드는 1547년 영어 설교를 비롯하여 성경봉독이 모두 영어로 읽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개혁의 양상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개혁은 실질적으로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에 의하여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다. 크랜머는 최초의 개신교 지향의 캔터베리 대 주교로서 에드워드 왕실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상당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독일의 부처와 같은 유럽의 개혁자들을 영국에 초빙하여 개혁의 이론적 바탕과 미래의 방향을 정하면서 예배분야에 특별한 개혁을 서두른 바 있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성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된 성자들의 유물들을 허물어뜨리면서 바른 예배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그는 1549년 예배 역사에 한 축을 이루는 「공동예식서」(Book of Common Prayer)를 만들어 영국교회 예배개혁을 완성시킨 바 있었다. 이 「공동예식서」는 주일예배를 비롯하여 매일의 아침 저녁 예배, 성찬 및 세례 성례전, 시편송, 기도문, 주일의 성서일과, 결혼과 장례 등을 수록하여 영국교회의 예배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 바 있었다.<sup>15)</sup> 크랜머 역시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성찬 예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을 기본적으로 강조하였다.

15) 여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를 위하여 Horton Davies, *The Worship of the English Puritans*(Glasgow: University Press, 1948) 제VI장을 참고하라.

이러한 개혁작업은 비록 오늘 개혁교회가 볼 때는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으나 그 당시로서는 실로 거대한 개혁의 발길이었다. 맥스웰은 이 예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예식서는 예전의 자료들에 있어서 풍부한 보화들을 보존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독특한 영국 스타일의 적합성과 고상함 그리고 우아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도문(collect)들은 라틴 형식과 비슷하지만, 미사 전문(Canon)은 고대 의식에 비해 매우 우수한 면을 갖추고 있다. 「공동기도서」의 공헌은 매우 값진 것이며, 이 예식서는 16세기의 다른 예식서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sup>16)</sup>

영국국교회(Church of England)는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감독교회(Episcopal Church)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성공회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교회 제도나 예배가 독자적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배의 특성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교회의 중추적 인물이었던 크랜머가 루터와 쾰빙글리와의 만남을 통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회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교회라고 일컫게 된다.<sup>17)</sup>

먼저,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아닌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도 예배에 있어서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

16) Maxwell 위의 책, p. 190.

17) 다음은 영국성공회의 유명한 '39개 신조-Thirty-nine Articles'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헨리 8세의 후계자 에드워드 6세 때 개혁자들의 사상을 이어 받은 크랜머가 1553년 「42개 신조」를 작성하였으나 메리여왕에 의하여 순교당하고 본 신조는 사장되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 때 이 신조는 '39개 신조'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1563년 발표된 바 있다.

다.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 정신을 준수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중과의 만남을 가져오는 두 개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이들의 예배 방향과 표준은 성경에 바탕을 두었다. 그리고 지적인 감감을 함유한 가운데 예배하는 회중들을 중심하였다.<sup>18)</sup>

셋째, 성공회는 7성례를 가지고 있는데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세워주신 성례로 존엄하게 지키고 있으며, 견진, 고해, 신평, 혼배, 조병(調病) 등은 교회가 필요하여 세운 성례로서 세례와 성찬과는 구별된 성례로 지킨다.

넷째, 이들은 카톨릭의 화체설을 거부하였고 올바르게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성물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어질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이들의 교리와 예배에서 연옥, 면죄, 성상 및 유물의 예배와 숭배는 수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고해성사와 같은 중보의 행위가 성서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에드워드의 설교」(1547)라고 칭한 설교문을 통하여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위치로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설교는 영어로 기록된 최상의 신학 단편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이다.<sup>19)</sup>

일곱째, 이들은 준비 없는 즉흥기도 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명상 속에 작성된 기도문들을 가지고 예배시간에 함께 드림으로 기도의 진지함을 지속하고 있었다.

끝으로, 영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장령」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에 이들의 예배 가운데는 왕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영국교회는 왕을 위한 기도와 같은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우 훌륭한 예배신학과 실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18) Cyril Garbett, *The Church of England Today*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56), p.93.

19) “English Reformation” in John H. Leith, *Creeeds of the Churche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p.230.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계열의 교회는 세계의 도처에서 아직껏 견제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배 내용의 특색 때문에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지대에 서서 예배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 III.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잃은 예배개혁

#### A 예배의 전통을 단절시킨 쾰빙글리 계열

1,500년 동안 기독교 예배의 중심점이 되어 왔던 성찬성례전을 최초로 주일예배에서 분리시키고 그 회수를 년 4회로 축소시켰던 개혁자의 이름이 바로 쾰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이다. 그는 중세의 주일예배에서 사라진 설교를 매 주일 회복시키고 예배순서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예배당 안의 성상의 조각이나 악기들마저 철거하는 예배의 대 개혁을 쾰리히에서 단행한 개혁자였다. 그가 쾰리히(Zurich)군대를 이끌고 군목으로 참전했다가 샤펠(Cappel) 전투에서 전사하기까지 개혁의 대열에서 활동한 시기는 10여년에 불과하지만 그는 거대한 예배개혁을 남긴 인물이었다. 그는 비록 오늘의 개혁교회를 창출시킨 개혁자였으나 예배의 차원에서 볼 때 그의 과격한 개혁은 혁명에 가까운 과정들을 밟았다는 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본 대로 루터 자신이 주도한 종교개혁의 중심점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었다. 그는 현실교회 안에서 겪은 영적인 갈등과 고뇌의 반복 속에서 성경의 우위성을 부르짖으면서 일어난 개혁자였다. 그러하기에 루터는 교회의 역사, 특히 예배의 전통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의 부분적 수정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쾰빙글리는 루터와는 다른 입장에서 개혁의 대열을 형성하였다. 그는 16세기 동안 이어온 예배의 전통과 역사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강조한 급진적인 개혁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개혁성향이 있기까지는 다음의 두 가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그가 에라스무스의 르네상스 인문주의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몸이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기본적으로 개혁운동을 민족주의적인 바탕 위에서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조국 스위스가 외국 군주들을 위한 용병으로 젊은이들을 보내 수입의 원천을 삼았던 것에 반기를 들 때 의외로 기존교회와의 심각한 마찰이 발생되자 그는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sup>20)</sup>

이상과 같은 그의 사상적 배경은 루터와는 달리 기존 교회의 예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분석에서 예배의 신비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나 실체들은 긍정할 수 없는 대상들이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예배의 주역들인 사제들의 역할이나 역사적인 유산들은 부분적인 수정보다는 전면적인 개혁의 대상들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예배관은 드디어 성찬예전이 매 주일 갖는 기독교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학사상은 그로부터 형성된 개혁교회로 하여금 과격한 개혁의 유산을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예배의 온전한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맥스웰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프빙글리 예전이 가져다 준 가장 비극적인 영향은 주일예배에서 성찬성례전을 분리함으로써, 더 이상 성찬성례전이 주일예배의 정규순서가 아니라 비 주기적으로 거행하는 기념의식이 되었다는 점이다.<sup>21)</sup>

프빙글리가 스위스 유리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개혁운동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고 있었다. 특별히 그가

20)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pp.60-61.

21) Maxwell 위의 책, p. 122.

내놓은 1523년의 「미사경본 비판」과 1525년의 「주의 만찬의 활용법」은 프빙글리 계열의 개혁교회 예배의 표준이 되고 있었다. 그가 시행한 개혁의 형태는 비록 예배 역사의 단절을 가져온 결과라는 심각한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음의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독교 예배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국어 로 행하여진 설교를 통하여 철저하게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세교회의 미사에 의하여 잃어버린 말씀의 예전을 회복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남기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중세교회 예배의 현장에서 사제의 독무대로서 사용된 언어나 의식의 거의 대부분이 회중과의 진정한 소통(communication)이 없었기에 회중은 언제나 관객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프빙글리는 의식보다 말씀에 회중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그 외에 그는 성인송배를 비롯하여 가시적인 성상들이 회중들에게 우상화 되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 안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각종 성상과 성자 축일을 비롯하여 각종 의식에 사용하는 성구(聖具)들을 소멸하였다는 사실 또한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헌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중세교회가 성찬성례전을 신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여기서 회중들이 미신적 신앙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요소들은 후일 개혁교회 예배의 본질이 되었다. 이 본질은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예배의 형태로부터 완전히 다른 줄기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배개혁의 결과는 동방교회나 로마 카톨릭교회를 비롯하여 심지어 루터 계열과도 예배의 교류가 단절된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프빙글리가 주도한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의 줄기를 벗어나서 진행되었던 다음의 문제들이 최근에 이르러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본대로 기독교 예배가 처음부터 지켜온 말씀의 예전과 성찬예전의 두 축을 분리시킨 점이다. 부패한 중세의 교

회가 말씀의 축을 외면했다면 쯔빙글리는 그 잃었던 말씀의 축을 회복하고 대신 성찬예전을 축소시킨 비극적인 우를 범하였다.

둘째는, 기독교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데 있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들려주는 예배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것도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은혜의 방편인 성례전 보다는 설교자의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는 「듣는 예배」로 지금까지의 「드리는 예배」를 종식시켰다.

셋째는, 기독교 예배의 15세기 동안의 역사와 전통의 맥을 거의 단절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쯔빙글리는 새로운 전통의 수립에 나섰다. 기존 교회의 예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이론과 전통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개혁교회 예배의 전통과 역사성의 결여를 심각하게 초래하였다.

넷째로, 예배를 통한 기독교의 신비한 경험이나 식어진 영성의 성장보다는 그는 인문주의자로서 철저히 모든 예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이로써 개혁교회 예배의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예배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다섯째로, 언어로 해결할 수 없는 메시지의 전달 수단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회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각종 상징과 음악과 절기 등을 활용하였다. 거기서 예배자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와 감사와 찬양이 허다하였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이러한 것을 모두 배척 또는 축소하고 순수한 언어와 문자에만 의존하였다.

끝으로, 그는 성찬성례전을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에 남아 있어야 할 단순한 기념식과 같은 범주에 머물게 하였다. 단순한 「이성과 합리」의 단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의 기본 사고구조가 「나를 기념(Anamnesis)하라」는 말씀의 뜻이 「회상과 재현」이라는 사실에는 거의 접근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오늘의 개혁교회가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성찬성례전과 호흡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쯔빙글리의 예배개혁은 이상과 같이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남기는 매우 특수한 것이었다. 현대의 예배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그의 예배개혁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B. 예배예전을 탈피한 재세례파

주리히를 중심한 쯔빙글리의 진보적인 예배개혁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그의 개혁이 설교와 성경연구를 통하여 성경의 권위와 복음이 강조되고,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 요소들을 물리칠 때 대단한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쯔빙글리의 개혁이 국가와 연계성을 가질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독자적인 개혁의 길을 걸었던 무리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재세례파(Anabaptist)들이다. 이들의 초기 지도자였던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 1498-1526)은 「말씀의 전달자 쯔빙글리는 말씀을 저버리고 그(국가)의 발아래 짓밟았으며 포로로 만들어 버렸다」<sup>22)</sup>는 심각한 저항을 하면서 「스위스의 형제단」(Swiss Brethren)을 조직하고 완전한 자유교회를 지향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교회의 형태인 재세례파를 이끌게 되었다.<sup>23)</sup> 이들은 공식적으로 형제단 또는 메노나이트(Mennonites)라는 교파명을 가지고 유럽 각지에 번져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적인 제도권 아래서 주어진 유아세례와 같은 것은 강제력에 의하여 주어진 세례라고 규정하고 어린이의 신앙적 무의식은 세례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이어받은 전통사상을 거부하고 자발적인 신앙에 의한 종교의 선택

22) G.H.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p.96.

23) 재세례파는 크게 세 계열로 분류된다. 그레벨을 중심한 스위스의 복음적 재세례파(Evangelical Anabaptist)와 호프만(Melchior Hoffmann, 1495-1544)이 주도한 네덜란드의 혁명적인 계열(Revolutionary Anabaptist), 그리고 독일의 뎅크(Hans Denck, 1495-1527)가 중심이 된 명상위주의 계열(Contemplative Anabaptist)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급진적인 개혁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독일의 토마스 뮌처(Thomas Munzer, 1490-1525)를 들 수 있다.

과 교회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은 성만찬이었고 세례에 대한 부분은 깊은 토론과 관심의 내용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계열의 개혁자들은 교회의 보다 완전한 정화를 추구하면서 그들은 유아세례의 시행이 교회의 개혁에 지대한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하여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서든지, 혹은 다른 계열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유아세례를 세례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은 공적으로 신앙고백을 한 성인들의 세례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sup>24)</sup>

이러한 신학사상은 자연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이어온 예배의 내용과 형태를 거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는 자신들의 의향대로 정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명상과 표현을 오히려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성찬성례전은 부정기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들은 예배의 일정한 틀이나 격식을 외면했기에 예배순서로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이들은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므로 주일예배에서는 성경봉독과 그 말씀의 해석 그리고 찬송과 기도가 있을 뿐이었다고 화이트는 서술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이들의 신앙생활과 예배형태는 개신교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았으나 오히려 이러한 박해를 통하여 그들은 매우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독특한 신앙생활을 계속한 바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이 비록 장엄한 예배나 사제의 돋보이는 예전적인 활동들이 없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질과 신앙의 본은 대단하였음을 다음의 서술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들의 외적인 공동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전혀 비난할 것이 없다. 거짓말, 사기, 맹세, 투쟁, 거친 말, 무절제한 과식과 과음, 외부로

24) 제세례파의 교리는 1527년의 슬라이타임 신앙고백(Schleitheim Confession)과 1632년의 도드레트 신앙고백(The Dordrecht Confession)에서 상세히 읽을 수 있다.

25) James White, 위의 책, p.87.

나타난 개인적인 자기 과시 등은 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과 인내, 강직, 겸손함, 절제, 솔직함이 있을 뿐이다.<sup>26)</sup>

이상과 같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을 추구했던 이들은 주로 스위스, 남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각 지역에 번져 있었다. 이들이 추구했던 자유교회의 특성은 기독교 예배의 역사와 전통과는 거의 담을 쌓고 어느 단체나 국가의 간섭이나 지배를 배제하면서 개 교회가 독자적인 노선을 자유롭게 펼쳐갔다. 이들의 신앙생활에서 예배와 관계된 부분들에 나타난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7)</sup>

첫째, 무엇보다도 이들은 국가와 연관된 교회의 조직과 영향 아래서 제정된 통일된 예배의 형태를 거부하였다. 이들은 공식적인 예배의 식(Public Worship)의 필요성까지 거부하고 철저히 개교회 중심으로 예배행위를 자유롭게 가지면서 '하나님과 의 동행'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이들은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말씀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이들의 설교는 은혜를 추구한 성경공부와 같은 주해설교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회중들의 삶에 바르게 선포하고 교육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학자적 지식과 교양을 중요시하였다.

셋째로, 이들은 철저히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성년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세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유아세례는 모두 무효가 되고 이를 그대로 '다시 세례를 받는 무리' 들로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넷째로, 이들은 국가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받은 극심한 핍박과 순교를 통하여 굳어진 신앙을 찬송으로 승화시켜 많은 작

26) William R. Estep, *The Anabaptist Story*(Michigan: Broadman Press, 1963), p.124.

27) 급진적인 진영인 제세례파의 예배개혁과 그 특성에 대해서는 James White의 책,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5장과 8장을 참조하라.

사 작곡을 남기었다. 그들이 사용한 찬송가의 상당부분이 현재 우리의 찬송가에 자리잡고 있다. 특별히 이들은 이러한 찬송을 애송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공동체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다.

다섯째로, 이들의 성찬성례전은 매우 비예전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성직제도를 부정하고 지교회에서 선택한 지도자를 자신들의 목사로 추대하고 성례전을 진행시키도록 하였으며 성찬예전의 시기는 쾰빙글리처럼 일년에 4회 정도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 성찬예전의 신학은 기념적인 예전으로 해석되었고 삶의 성화와 사랑에 강조점을 두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공고히 묶게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 IV.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소중하게 생각한 예배의 추구

##### A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태동한 부처의 예배의식

독일이 모두 루터의 영향 아래서 각 교회마다 그가 만든 예배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는 상당히 독립적이었다. 이 지역의 예배개혁은 디볼트 슈바르츠(Diebold Schwarz)가 1524년 성 로렌스(St. Laurence)교회의 성 요한 채플에서 처음으로 신을 보인 것이 미사를 개신교의 예배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예배순서에는 쾰빙글리와 같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많은 부분을 보존하고 창의적인 면을 첨가하였다. 로마 카톨릭의 회생제사의 교리를 벗어나 성자들이나 성모 마리아를 향한 기원, 사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원 등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사제의 예복을 비롯하여 거양성체와 집례자의 손을 씻는 의식과 무릎을 꿇는 예배자의 몸가짐 등은 그대로 지속하고 있었다.

이 무렵 부처(Martin Bucer)가 1530년 이곳의 감독이 되면서 예배의 개혁은 새로운 틀을 잡아가게 되었다. 부처는 아직도 복잡한 루터의 예배와 너무나 간단한 쾰빙글리 예배의 중간 지점에서 개혁교회 예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부처의 예배개혁의 내용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기도문들을 선택하여 드리게 되고, 사도 신조가 니케아 신조

를 대신하여 주로 사용되어졌다. 축도는 아론의 축도가 사용되었고, 시편 찬송과 독일어 찬송이 사용되었으며, 미사(Mass)라는 말 대신 '주님의 만찬' 혹은 '성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사제'(priest)라는 말 대신 '목사'(minister)라는 용어가 대체되어 사용되었다. 또한 '제단'(Altar)이라는 말 대신 '성찬상'(Holy Table)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고, 라틴어 용어들이 독일어 용어들로 대체되었다. 옛날의 성서 일과를 따라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들을 택하지 않고, 설교자에 의해서 자유롭게 본문이 선택되었으며, 설교는 정기적으로 선포되면서 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가 선포되기도 했다. 절기들은 간단해졌고, 집례자가 회중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성찬상을 바라보며 집례 하던 것을 이제는 성찬상 뒤에 서서 회중들을 바라보며 집례 하였고, 성찬상은 회중들 가까이로 옮겨졌다. 목사의 예배 가운데 검정색의 단순한 가운을 착용하게 되었고 종래의 다양한 사제들의 제의(祭衣)는 폐지되었다. 이 기간에 매 주일 성찬의 실행은 변경되는데, 1537년부터는 매 주 시행되던 성만찬은 대성당에서만 지켜질 뿐이었고, 월 1회로 바뀌게 되었다.

1537년에 만들어진 부처의 이러한 예전은 개혁 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예전으로부터 나중에 칼빈주의의 예전과 스코틀랜드 교회의 예전이 파생되어 나온다. 이 예전에서 특징적인 것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성체를 받을 때 회중들이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서 서서 받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받았다. 이러한 예배의 형태는 개혁교회의 예배전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 B. 제네바에서 이어진 칼빈의 예배의식

1533년 제네바 종교개혁은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의 지도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1536년 파렐이 불란서 출신의 칼빈(John Calvin, 1509-1564)에게 제네바 종교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데서부터 칼빈과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연관을 맺게 되었다. 칼빈은 그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전임을 강조

하였다. 그러하기에 목회자가 매 주일 수행해야 할 중요한 직무는 설교와 교육에 매 주일의 성찬성례전을 집례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sup>28)</sup> 그러나 이미 쾰빙글리 예배의 영향권에 젖어 있었던 제네바 의회는 전혀 동조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제네바에 오기 전에 집필했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다음의 명언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용감하게 초대교회의 예배정신을 계승하려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한 관례는 분명히 악마의 농간이다. 주님의 만찬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한 번은 참여할 수 있도록 거행되어야 한다.<sup>29)</sup>

이 때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던 환경이었기에 제네바의 행정관료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제네바의 행정관료들은 칼빈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갈등만을 계속하다가 1538년 칼빈은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나야 했다.

한편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예배개혁은 칼빈이 이곳에 망명해와 불어권 회중들을 목회하면서 완전한 정착을 가져왔다. 부처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1541년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약 3년 동안 지내면서 칼빈은 부처의 예배개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부처가 작성한 예배 모범(Service book)은 매우 중요했다. 그가 예배 인도자로서 이곳에서 활동하는 동안 부처의 예배 모범을 사용하였고, 나중에도 약간의 수정을 가한 예배 모범을 발전시킬 뿐이었다. 그 동안 쾰빙글리에 의하여 예전의 감각이 없어 설교만으로 예배를 진행했던 개혁교회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갱신을 칼빈은 이곳에서 시도하였다. 즉 칼빈이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찬성례전을 주일예배에서 생략하는 경우에도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예배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후일에 개혁 교회 예배의 중요한

28) Ronald S. Wallace, 정장복 역,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제 6장과 7장에서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29) Text 35. vol.xxxiv. pp. 1051-1, Mawell, 위의 책, p.159에서 재인용.

틀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sup>30)</sup>

3년여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1542년 그의 예배 모범(service book)을 펴낸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른 성만찬의 집례 요령과 그 기도문」(The Form of Prayer and Manner of Ministering the Sacraments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Ancient Church)이라는 기다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예전은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의 예전과 파렐(William Farel)의 예전에서 받은 깊은 영향과 자신의 예배 현장에서 얻은 경험들을 종합하여 이 예전을 발전시켰다.<sup>31)</sup> 칼빈의 예전에서 특징적인 것은 초대 교회와 같이 성체를 받기 위해 나아 온 사람들에게 권고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으며, 성경 봉독과 설교 전에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운율을 사용한 시편이 찬송되었다는 점과 구제를 위한 헌금이 드려짐으로서 사람들에게 의한 봉헌이라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만찬 신학을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루터와 같이 축도를 아론의 축도(민 6:24-26)를 사용한 바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칼빈이 “중세 미사를 흉내 내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그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였다.”<sup>32)</sup>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그가 1542년 행했던 제네바 예배의식에서는 예배의 부름, 죄의 고백, 속죄를 위한 기도, 시편송,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 성경봉독, 설교, 연보, 기도와 주기도문, 성물 준비, 성찬제정사; 권면,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 성체분할, 분병분잔, 성찬 참여, 성찬후 기도, 아론의 축도 등으로 구성된 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칼빈에게 있어서 성찬성례전은 쾰빙글리의 기념적 행위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이었다. 칼빈은 루터의 공존론의 주장인 성찬성례전에서의 주님의 사실적 임재론을 피하고 있다. 그는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경험하기

30) Robert N. Schaper, *In His Presence: Appreciating your Worship Tradit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 1984), pp. 128-129.

31) White, *Protestant Worship*, p. 64.

32) Mawell, 위의 책, p.154.

를 원하다”고 피력하면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성찬에 실제적으로(really), 그리고 전적으로(fully) 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찬성례전을 행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신학이 바로 영적 임재설로서 오늘에 이른다.<sup>33)</sup> 어떤 점에서 칼빈의 성찬성례전의 임재론은 쾰빙글리와 루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루터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성찬성례전은 설교와 함께 예배에 있어 중심적이고 규범적인 요소였으며, 그는 매 주일 시행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는 망명의 길을 떠나야 했다. 비록 다시 제네바 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돌아왔지만 여전히 매 주일의 성찬성례전예전은 허락 받지 못한채 “화평을 위해서”라는 천제 속에 겨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다. 먼저는, 성찬성례전은 1년에 네 번 이상으로 하되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추수절<sup>34)</sup>을 중심으로 거행한다. 둘째, 시의 모든 교회는 성찬예식을 동일한 날짜에 갖지 않게 하여 자주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자유롭게 이곳 저곳의 교회에서 참여하게 한다. 셋째, 성찬성례전의 형태는 받는 순서를 집례자가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이 분병분잔을 하게 되는 부교역자나 위원들, 그리고 맨 다음으로 회중들이 받는다. 넷째, 회중들의 수찬은 성찬대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거나 선 자세로 받는다. 공동 집례의 경우 한 목사로부터 빵을 받고 다른 목사로부터 잔을 받는다.<sup>35)</sup>

제네바 의회와의 더 이상의 갈등을 지속하지 않고 평화를 위하여 취해진 그의 결단이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의미 심장한 말을 후대에 남겨 그가 얼마나 성찬성례전이 예배에서 절대적인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까지 개혁교회에 알려주고 있다.

33) Willimon, *Word, Water, Wine and Bread*, pp. 69-70.

34) 여기서의 추수절은 미국의 국경일인 11월 3째 주일을 말한 것이 아니고 스위스의 추수 절기를 말한다.

35) Mawell, 위의 책, pp.160-161.

우리가 성만찬을 일년에 네번 집례하거나 여러분이 세번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는 성만찬이 보다 자주 집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의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에서 성찬이 보다 자주 거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미사에 대한 증오가 사탄에 의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년에 한두번 성만찬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의 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결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sup>36)</sup>

이러한 칼빈의 입장이 제네바 행정의 구조적인 장벽 때문에 펼쳐지지 못하고 갈등으로만 지속될 때 그는 자신의 영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비애에 잠기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룩하지 못한 진정한 예배의 복원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말과 함께 후대에 부탁한바 있었다.

나는 우리의 성만찬 관례에 결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을 조심해 왔다. 이제 내 이후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다 자유롭고 용이하도록 고쳐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sup>37)</sup>

### C. 스코틀랜드에서 만개한 낙스의 예배의식

제네바가 칼빈을 중심으로 개혁교회 신학의 요람지가 되었다면 스코틀랜드는 낙스(John Knox, 1513-1572)와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2)에 의하여 이룩된 장로교의 요람지이다. 장로교회의 교회직제와 정치와 교리의 규범은 멜빌의 주도하에 1578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비준이 되어 확정되지만, 장로교 예배의 초석이 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Directory for Public Worship)은 찰스 I 세

36) 이 글은 칼빈이 1555년 베른의 행정관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Mawell, 위의 책, p.160에서 재 인용.

37) 위의 책, p. 161.

(1600-1649)의 몰락에 이어 1645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세계의 장로교 예배의 원조가 되는 이 예배모범이 나오기까지는 긴 역사가 그 뒤에 담겨 있었다.<sup>38)</sup>

그 줄거리는 존 낙스로부터 시작된다. 낙스의 망명은 피의 여왕이라는 악명이 붙은 메리(Mary Tudor, 1516-1558)의 등장 때문이었다. 메리 여왕은 대영제국의 교회에 심각한 한파를 몰고 왔었다. 그녀는 부왕이었던 헨리 8세의 교회 수장령마저 파기하면서까지 로마 카톨릭으로의 복귀를 시도하였고 여기에 반대한 무리들에게는 잔인한 핍박을 가하였다. 이 때 개혁의 가치를 이미 들고 활동하였던 낙스는 대륙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프랑크프르트(Frankfort)를 거쳐 영어권의 개혁교도들을 위한 일시적인 목회를 제네바에서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여기서 부처와 칼빈으로부터 신학과 예배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칼빈의 예식서를 사용하면서 칼빈의 예배신학을 접하게 되었다. 1558년 메리 여왕의 죽음은 낙스로 하여금 귀국을 서두르게 하였다. 낙스는 1559년 고국 스코트랜드의 수도 에딘버러(Edinburgh)에 있는 성 자일(St. Giles)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면서 예배의 개혁을 본격화 하게 되었다.

낙스가 고국에 귀국하면서 교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신조-Confession of Faith」, 「교회행정지침서-Book of Discipline」, 「예배서-Forme of Prayers」를 가지고 왔었다. 이것들이 바로 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통과된 장로교의 기본 지침서들이 되는 초석이었다.

그 중에서 예배서는 낙스 자신이 목회를 하는 동안 칼빈의 예식서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던 것이기에 스코트랜드 교회의 예배서로 내 놓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드디어 이 예식서(Forme of Prayers)

38) 장로교 예배모범의 모체가 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는 필자가 스코트랜드 교회의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집필했던 다음의 글에 실려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에 관한 분석, 「예배의 신학」,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pp. 161-197

는 1564년 스코트랜드 교회 총회에서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예식서의 서문에는 “목사로 안수를 받은 자는 에딘버러에서 최근 출판된 예식서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 예전, 기도, 결혼, 성례전을 집행해야 한다.”<sup>39)</sup>라는 결의문이 실리게 되었다.

이 예식서가 스코트랜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자 영국 왕실의 분노가 치솟기 시작하여 낙스의 예식서 사용을 금지시키는 칙령과 함께 즉흥적인 기도와 장로제도의 폐지를 명하였다. 이 칙령에 반대한 자들은 모두 출교를 시키면서 영국 왕실은 켄터베리 대 주교였던 로드(William Laud)를 시켜 대영제국의 왕을 수장으로 하는 교회의 예식서(Laud's Liturgy)를 만들어 스코트랜드 교회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왕실의 노력은 스코트랜드 교회에 의하여 철저히 외면당하였다. 드디어 스코트랜드 교회는 자신들의 개혁신앙을 따라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드디어 계약군(National Covenant)을 조직하고 무장봉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거의 동시기에 영국 의회의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 장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의회군과 연합하여 찰스 왕의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이 승리는 바로 스코트랜드 교회의 청원대로 웨스트민스터에서 새로운 예배모범과 신조와 교회직제를 우선적으로 제정하여 1645년 1월에 영국의회의 통과를 보게되어 스코트랜드 교회 총회와 의회의 인증을 거침으로 명실공히 장로교의 예배모범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sup>40)</sup>

이 예배모범은 그 기본정신과 표현에 있어서 제네바 예식서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그 구조와 내용의 형성은 약간의 차이를 보

39) G. W. Sprott, *The Book of Common Order of the Church of Scotland Commonly Known as John Knox's Liturgy* (Edinburgh: William Blackwood and Sons, 1901), p.xv.

40) Thmas Leishman, *the Westminster Directory*(Edinburgh: William Blackwood and Sons, 1901), pp.xiii, xxv.

이고 있다. 이 예배모범에 실린 강조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1) 주일 성수는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모든 준비를 하도록 강조하였다. 이 날의 준비는 오락이나 운동이나 불필요한 노동을 삼가도록 하고 주일예배를 위한 준비기도를 권장하였다.

(2) 예배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진지할 것을 강조하고 어떤 성상이나 무덤을 참배하는 것을 엄금하고 옆 사람과의 대화, 왕과 같은 특수한 인물이 들어 올 때의 경의 표시, 기타 목사를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였다.

(3) 주일예배의 시작은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예배자들이 용서받은 몸으로 예배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예배행위는 하나님께 참회하고 용서받는 것임을 강조한다.

(4) 세례성례전은 필요한 경우 언제나 공적인 예배시에 목사가 예배모범의 예식을 따라 집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세례는 아이 아버지의 신앙고백과 청원을 중요하게 여겼다. 회중들은 이 시간을 자신이 세례를 받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5) 설교전의 기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설교자의 죄까지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였다.

(6) 성경봉독은 가급적이면 66권이 차례대로 봉독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분명하고 엄숙하게 봉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성경읽기는 보편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41)</sup>

(7)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의 사역에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교자는 성

41) 1652년 총회는 이 규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었고, 1856년 총회에서는 이 결의를 무효화 시킨 바 있었다.

경의 원어를 비롯한 신학, 문학, 과학의 지식을 소유해야 함을 당연시하고, 이 막중한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에 의하여 보다 확실히 조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8) 성찬성례전을 자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집례할 목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제네바에서 년 4회의 성례전의 관례는 이곳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sup>42)</sup>

(9) 성찬성례전 의식에 있어서 제정의 말씀을 읽도록 하였고, 그 말씀의 적용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병분잔이 끝난 다음에도 집례자가 주님의 살과 피에 흠이 가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간절하게 강조하도록 하였다.

(10) 성찬성례전 참여의 형태는 수찬자들이 모두 성찬상 앞으로 12명씩 나와서 받도록 하였다.

(11) 예배 찬송은 시편에 그들의 고유한 운율을 사용하여 불렀고, 악기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교회 음악의 발전과 함께 악기의 사용이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예배의 정신과 기본 내용을 가지고 구성된 이 예배는 말씀의 예전과 성찬성례전으로 구분되었다. 말씀의 예전에서는 죄의 고백 / 용서를 위한 기도 / 시편송 /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 / 성경봉독 / 설교가 있었다. 그리고 성찬성례전에는 연보 / 감사의 기도와 이웃을 위한 기도 / 주기도문 / 사도신경 / 봉헌 / 성찬제정사 / 권면 / 봉헌기도 (경배, 감사, 회상, 송영) / 성체분할 / 집례자 성찬 / 분병분잔 / 회중의 참여 / 감사기도 / 시편송 / 강복선언 등이 예배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예배는 장로교의 원조인 스코트랜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일기 시작한 예배 부흥운동은 이 나라 교회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드디어 1940년 「공동예배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예배서에 나타난 예배의 순서는

42) William Maxwell, *A History of Worship in the Church of Scotland*(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p. 141.

개혁자들이 상실한 것을 많이 보충하고 있음을 본다. 실질적으로 16세기의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교회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루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예배형태에 대하여도 독자적이고 축소된 방향을 찾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스코트랜드 교회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개혁교회의 예배가 예배의 고유한 정신과 형태들의 중요한 부분들이 상실된 것을 인정하면서 이상의 [공동예배서]를 펴내기에 이르렀다.

#### 맺는 말

종교개혁을 통하여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교회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현상이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러한 변화 앞에 개혁을 새롭게 음미하게 되었고 새로운 활기를 찾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다양한 예배의 전통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루터교나 영국국교회를 제외하고 기타의 예배개혁은 얻은 것에 못지않게 잃은 것도 적지 아니함을 보게 된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어받은 쾰빙글리를 중심한 개혁교회 계열의 예배개혁과 그 영향은 심각할 정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지극한 경외와 찬양을 드러냈는데 오늘의 개신교회는 회중들에게 초점을 두고 예배의 방향이나 내용을 구성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특별히 예배의 중요한 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희생과 대속을 재현하면서 매 주일 거행되는 성찬성례전이었다. 이 예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형성되었고 거기서 감사가 우리 나오는 신앙이 드러나게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통일된 예배 의식을 통하여 하나의 예배하는 공동체(Worshiping Community)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신교

는 각기 다른 예배전통을 수립함으로써 하나 된 교회의 인식을 갖지 못하였다.

동일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16세기의 개혁을 통하여 사분오열되어 그들의 후예들이 드리는 예배의 양태 또한 다양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 일치성을 찾는다는 대 전제는 예배를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과제는 개혁자들이 갱신한 예배의 소중한 부분을 한 손에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개혁자들에 의하여 잃어버린 소중한 전통을 다시 찾아 보는 데서 이룩되어야 한다. 이럴 때 진정한 예배회복이 21세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